

지역 소식

2017 한국 청년 대회 특집 – 2017년 8월 11~15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대회 목적

1.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우선으로 할 때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발전시킨다.
2.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합당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시작해야 할 것을 찾는다.
3. 우리의 시온인 한국 땅에서 주님의 서두르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물리적 **집합**을 이룬다.
4. 영적인 집합을 위해, 복음을 통해 느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한다.



2017
한국
청년대회



20 17 한국 청년 대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이 대회를 위해 묵묵히
희생과 봉사를 해주신

준비집행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
봉사한 조장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차례의
훈련 모임과 준비 모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려는 여러분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해외 준비팀과 여러 지도자님,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재외 교포 및 유학생 150여 명이 참석하여
대회가 더욱 빛났습니다. 흥미롭게도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의 학기 시작이 올해부터 8월에서
9월로 변경되는 주님의 기이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십니다.

청년 문화 축제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를 찬양하는
창작곡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하여 “노래로, 음악으로, 춤으로 … 주를
찬양”(교리와 성약 136:28)하는 여러분에게서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세상의 음악보다는 일상의
생활에서 복음을 바탕으로 한 노래와 음악을 더 많이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축제가 가능하도록 멋진
시설이 준비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대회 모임들이
생방송이 되도록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에 참가하고 함께 해준 모든 청년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희생해 주신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회장단이 800여 명의 참가자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분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므로 그분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대회장 배동철 장로

4박 5일간 열린 2017년 한국 청년 대회가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청년들과 재외 교포 및 주한 외국인 청년들까지, 90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청년들의 부모님, 전국의 지도자님께 큰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주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지켜보았습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지역 칠십인이 전하신 말씀과
간증을 통해 청년 여러분은 이 대회의 주제 성구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마태복음 6:33) 하는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영적인 가르침을
들으며, 그분들의 사랑을 느껴졌습니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계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과 자매님께서 영상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주님의 영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청년 문화 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청년들만의 아름답고 멋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과 실제 대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나는 이 청년 세대를 왜 이 후기에 보내셨는지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비록 그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
아픔은 다를지라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해답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주제 성구와 목적은 이 세상을 이기신(교리와 성약 50:4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과 방법을 보여줍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 네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얻고자 힘써
노력할 때,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 강한 신앙의 행사가 요구되더라도 반드시 얻을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청년 여러분, 이제 2017년 한국 청년 대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4박 5일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소망하고, 결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번 한국 청년 대회의 주제 성구였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일상 속에서, 혹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기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니파이후서 4:34)라고 기도했던
니파이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집행위원장 김현수 형제



첫째 날, ‘집합’

우리의 시온인 한국 땅에서 주님의 서두르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물리적 집합을 이룬다.

참 가자들과 그들의 부모,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소망과 기대로 대회의 아침이 밝았다. 한국 교회의 허리로 상징되는 900여 명의 청년 독신 성인과 독신 성인들이 한국 전역을 비롯하여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전 세계에서 경기도 여주로 모여들었다.

한국 청년 대회를 고대해 온 청년들의 기대감으로 대회 장소인 여주 중앙 청소년 수련원이 들썩였다. 청년들은 휴식, 추억, 친구, 데이트 기회, 봉사 기회, 선교 사업에 관한 결심, 간증 강화, 미래에 대한 용기와 확신, 영적인 해답, 확고한 신앙 등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

대회 하루 전날 선교 사업에서 막 귀환한 부산 스테이크 조영진 형제는 이렇게 전했다. “선교 사업의 영을 유지하기 위해, 봉사 지역 회원의 권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잊힌 지 오래, 맑은 하늘 아래 대회장의 녹음이 더욱 빛났다. 입소 절차를 통해 명찰과 티셔츠, 물통, 부채, 방배정표 등을 받은 참가자들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오후 12시, 운영 준비 위원회는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의 말씀으로 개회식이 열렸다. 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한국 청년 여러분은 전세에서 한국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영원한 사업을 위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에 의해 왔습니다. … 이 대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과 준비를 위해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청년들이 조별로 모이자 ‘친해지길 바라’라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조장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은 다른 조원들과 만나 자신을 소개하고 친목을 다졌다. 연합조와 만나 동적인 활동을 하며 땀을 흘렸다.

저녁 식사 후 진행된 ‘불금의 밤’에서는 조별로 각자의 집합지에서 경쾌한 게임을 즐겼다. 첫날의 가벼운 활동들은 청년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기초를 다져주었다. 또한 이날의 주제인 ‘집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벼운 활동들이 마련되었다.

문장 조합 게임을 했던 어떤 참가자는, “‘불금의 밤’에서 글자 카드로 문장을 만들어내야 하는 활동을 했는데 작은 글자가 모여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온에 집합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힘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합에

대해 쉽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창원 스테이크 김민기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첫날 조원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머지 활동과 모임에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적인 즐거움까지도 모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청년들은 이미 대회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



둘째 날, ‘선교 사업’

영적인 집합을 위해, 복음을 통해 느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한다.

하루 한 가지, 참가자들에게는 그날의 주제가 정해졌다.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개인적으로 상고한 그날의 주제는 조별 하루 열기와 하루 닫기 시간에 토론을 통해 다루어졌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회장인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제1보좌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제2보좌 최윤환 장로가 이 모임에 함께했다. 이날부터 청년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청년 대회를 감리하고 축복했다.

둘째 날의 주제는 ‘선교 사업’. 기도로 둘째 날을 열며, 참가자들은 영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강당에 모여, 30분 동안 진행된 소셜 미디어 선교 사업에 관한 발표를 먼저 들었다. 한국 관리 본부의 연수정 자매가 소셜 미디어 선교 사업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야마시타 장로 부부가 진행하는 영적 모임에서, 영적 양식을 고대해 온 청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 주제는 영적인 집합, 즉 선교 사업이었다. 야마시타

장로는 항상 미소를 짓고, 언제 어디서든 입을 열라고 권유했다. 옆 사람과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하고 실습 후의 느낌도 나눠보도록 했다. 그는 ‘행함’에 대해 강조하며, 성신의 느낌을 받거든 즉시 행동으로 옮기도록 독려했다.

이날 저녁에는 전국 회원들이 고대하던 청년 문화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 1부 버라이어티 쇼에서는 음악과 춤의 재능을 지닌 청년들이 난타, 춤, 중창, 피아노 연주, 기타 연주,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강당을 화려한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다. 2부 토크쇼에서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상담하고 대회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경쾌한 노래가 연주되었다. 진행자, 밴드,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길 염원했다. 또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청녀들이 상호 향상 음악으로 춤 공연을 펼치며 건전한 음악과 즐거움을 표현했다. 또한 최근 개종한 통기타 가수

김은영 자매가 부르는 감미로운 노래가 모두의 귀와 가슴을 울렸다.

청년 문화 축제에서 펼쳐진 음악, 특히 창작곡과 춤의 향연은 교회 표준에 맞는 교회 문화를 심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

이날, 특별히 제작된 약 8분짜리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와 개척자들의 헌신, 주님의 사도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전한 말씀, 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시온을 세우는 청년들의 이야기 등이 포함되며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권유했다. 행사 일부로서 참가자 모두가 함께 부른 애국가가 대회장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 영상을 본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외국에 오래 머무르고 있어요. 영상에서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덕분에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받기만 하고 갚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



셋째 날, ‘신앙’

대회 셋째 날인 일요일, 전국 규모의 청년들이 함께한 가운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게이 회장의 감리로 성찬식이 시작되었다.

청년들은 경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했고, 청년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는 에어콘 바람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신권을 가진 50여 명의 청년 형제들이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했다.

첫날부터 시작된 더위와 대회장으로의 여행, 어울려 했던 다양한 활동에 쏟은 에너지로 피로해 보이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자진해서 일어나 강당 뒤편에 서서 말씀을 경청했다.

로버트 시 게이 장로의 아내인 게이 자매가 시련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널 에이 맥스웰 장로의 글을 인용하여, 우리 개인을 살아있는 집에 비유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라는] 집을 재건하러 오십니다. …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집을 지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아담하고 안락한 오두막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분께서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넓은 관점과 시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이 장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사명을 성취할 때 성공이 임합니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민지 자매는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우선으로 할 때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전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성찬식이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겪어 온 시련들 때문에 괴로웠는데, 제가 멋진 궁전이 될 것이라는 말이 와닿았고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싶어요.”

성찬식 모임 후 질의응답 모임에서는 청년들의 질문에 지역 회장단이 직접 답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유학생의 귀국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며, 게이 장로는 선교 사업은 우리의 성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잘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한국인입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어디 살고 성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총관리 역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여쭤봐야 한다며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를 권고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성약을 지킨다면 필요한 모든 것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약속을 전했다.

모임이 끝난 뒤, 게이 장로를 비롯하여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야마시타 장로와 최윤환 장로, 지역 칠십인 정태걸 장로, 구승훈 장로, 배동철 장로는 자리에 서서 참석한 모든 청년들과 악수하고 인사했다.

오후,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패널 토론 시간에는 금융, 취업 및 인사, 정신의학 및 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문 분야 외에도 결혼한지 오래된 부부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이 함께하는 결혼 및 데이트에 관한 토론, 인간관계와 소통에 관한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청년들은 질문을 통해 미래에도 역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신앙과 실질적인 가르침을 얻었으며, 막연했던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복음의 기초 위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리라 다짐했다.

방송을 통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스티븐슨 장로의 말씀은 6~9쪽에 이어진다. ■





복음의 관점과 영적 균형을 유지함

2017년 8월 14일, 청년 대회 일요일 저녁 모임에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와 그의 아내 리사 스티븐슨 자매가 방송을 통해 말씀했다. 이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청년 및 성도들에게 생중계되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리사 자매와 저는 비록 전자 장비를 통한 연결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저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에 대한 멋진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장로와 저는 청년 독신 성인 및 독신 성인 대회에 참석하라는 이 임무 지명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 중에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열린 EFY에서 저희가 말씀했을 때 청남이나 청녀로서 참석했던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는 늘 여러분의 현신과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소망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스티븐슨 장로: 저도 그 대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훨씬 어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성전 앤다우먼트, 선교 사업, 군 복무, 대학교, 취업 등 말입니다.

스티븐슨 자매: 아마 진지한 테이트도 했겠죠.

스티븐슨 장로: 맞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 특별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한국에서 독신 성인(SA) 대회 운영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와드와 지부 여러분을 여행하고 방문하면서 많은 독신 성인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단위 조직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성과 봉사와 신앙 면에서 중요하면서도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인사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드립니다.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 주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자매: 여러분은 또한 주님으로부터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스티븐슨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 관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도전을 상쇄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별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니파이후서 2:2 참고) 이러한 복음 원리들은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강조하려는 첫 번째 사항은, 복음의 관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1. 복음의 관점을 유지한다

옥스 장로님은 “관점이란 모든 사실을 하나의 의미 있는 관계로 보는 것이며,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관점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스티븐슨 자매: 둘째, 여러분은 선택이 허락된,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스티븐슨 장로: 셋째,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합니다.(니파이후서 2:11)

스티븐슨 자매: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즉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를 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스티븐슨 장로님, 그렇게 해볼까요. 그 렌즈를 지금 꺼볼까요!

(스티븐슨 장로 내외가 안경을 끼다.)

이런 ‘안경’을 쓰면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유혹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초점이 모일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안경이 필요합니다!

스티븐슨 장로: 복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복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당신께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탄이 유혹할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대적이 마약과 외설물을 비롯한 중독을 통해 우리의 선택의지를 앗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티븐슨 자매: 우리 시대에 중요한 문제가 된 다른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가족, 결혼, 그리고 자녀를 의롭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렌즈를 통해 대적이 가족을 파괴하고 성별에 따른 역할을 혼동시키려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븐슨 장로: 지금까지 첫 번째 강조 사항인 복음의 관점을 유지하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다음 주제인 영적 균형을 유지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영적 균형을 유지한다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성인들이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을 가질 때 … 삶에서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몇 가지

세상의 유혹을 피해야 하며, 또한 구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과 방향성이 필요한 온갖 크기의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인생의 우선순위로 어떻게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러한 목록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육, 취업, 결혼, 군 복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스티븐슨 자매: 물론 여러분의 도전 과제는 이런 중요한 인생의 역할과 여러분의 영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다른 모든 책임에 집중하는 동안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저희가 설명해 드린 균형을 찾는 것은 정말로 힘든 도전입니다. 이 원리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성인 회원들과 좀 더 성숙한 독신 성인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매일 무릎을 끊고 기도하며, 교회 부름에서

삶의 균형 맞추기

Balancing Your Life



봉사하라는 권고를 따르는 것이 왜 특히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스티븐슨 장로: 물론 인생에서 추구하고 도전해야 할 목표들을 영성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여러 다양한 개인적인 필요 사항이 있겠지만 그 외중에도 여러분은 그런 균형이 달성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를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몬순 회장님은 주님께서 당신이 부르시는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것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히 이 권고가 그분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 벼차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적절히 집중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필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위대한 기적 중 하나로 영성과 삶의 역할에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단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역할과 영성 모두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지렛대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균형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성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적절한 초점과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유념하십시오.

스티븐슨 장로: 저의 관찰과 개인적인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어느 한쪽으로 좀 더 크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티븐슨 장로: 흥미로운 것은 양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또는 학업에 적절히 집중하면서 교회 봉사 시간에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복음의 관점을 유지하라와 영적 균형을 유지하라는 두 가지 중요 사항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항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격려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3.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다

스티븐슨 장로: 이 점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을 유지하고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 원리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하늘 부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스티븐슨 장로: 제 아내가 방금 설명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자라는 지식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저의 신앙이 솟구쳐 오릅니다!

스티븐슨 장로: 여러분은 각자 삶에서 이 원리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으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종종 되새기는 영감 어린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븐슨 장로: 이 경험은 고모할머니께서 미주리 주의 작은 후기 성도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어린 소녀 시절에 기록해 두신 것으로, 당시에 교회는 초기 역사에서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 회원들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집과 소유물을 남겨 두고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폭도가 조직되고 있으므로 그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티븐슨 자매: 가지고 있던 것을 모을 시간도 없이 그들은 가족으로 무리를 지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가족 그룹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 목숨을 염려하며 최대한 빠르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탈출하던 중에 너무 넓어 건너기가 힘든 커다란 강둑에 이르렀을 때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슨 장로: 그들은 물가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강을 건너오고 있는 나룻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룻배로 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모아 사공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모할머니의 일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를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주기에는 우리가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려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도들이 그 큰 강둑에 모여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일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몇몇 형제님들은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사공이 그것을 뱃삯으로 받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저녁에 낚싯줄을 드리웠다. 아침에 낚싯줄을 거둬보니, 5킬로그램이 넘는 큰 메기 한 마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사공에게 갔는데, 사공은 물고기를 뱃삯으로 쳐 달라는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스티븐슨 자매: 저는 그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목숨이 희생될 수도 있겠다고 느끼며 몹시 낙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 한 사람이 그 커다란 물고기를 깨끗하게 닦아서 칼로 배를 갈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티븐슨 장로: 그 일지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가르자, 놀랍게도 거기에는 50센트짜리 은화 세 개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 물고기의 배에서 은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은화가 이 절망에 빠져 있던 성도들에게 일으킨 흥분과 놀라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다음 문장으로 일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뱃삯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이었기에 모두들 기적으로 여기며 기뻐했다.”

스티븐슨 자매: 우리 모두에게는 ‘뱃삯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는 데도 건너야만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 강은 여러 다양한 종류와 형태와 크기로 옵니다. 어떤 것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저희 중조고모할머니의 경우만큼이나 심각하기도 합니다.

스티븐슨 장로: 어떤 것들은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점이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는 몰몬경의 다음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심을 우리가 보나니”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의 심정은 온 땅 위에 있도다.”(앨마서 26:37)

스티븐슨 자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알기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스티븐슨 장로: 저희의 말씀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간증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전한 생각들을 빠르게 요약해 봅시다.

첫째, 저희는 복음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렌즈 또는 안경’을 통해 여러분 주변 세상을 바라보라는 개념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 영적 균형을 유지하라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중요한 역할에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즉 우리의 영성과 균형을 이를 때 그 역할들을 가장 잘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저희의 신앙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필멸의 삶에서 우리의 사명 중 한 부분인 도전을 해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넷째 날, ‘영원한 결혼’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합당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시작해야 할 것을 찾는다.

월 요일, 이날의 주제는 영원한 결혼이었다. 오전에 열린 지역 회장단 영적 모임에서, 게이 장로는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었다. 게이 장로 부부는 학생 시절 결혼하여 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항상 십일조 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축복을 받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게이 장로 부부는 복음을 기반으로 데이트와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한 원리를 나누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조언했다.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업 중 하나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결혼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천 지방부의 황예지 자매는 배우자를 찾고 기다리는 과정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조언을 얻었다고 전한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하며 자신의 생활에 충실히 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퇴소 하루 전인 넷째 날, 청년들은 잊지 못할 추억들을 경험하며 남은 에너지를 불태웠다. 빗속에서 진행된 ‘물총 대첩’에서,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이 청년들은 각자 준비해온 독특한 물총으로 물을 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렸다.

각종 게임과 춤이 어우러진 댄스파티가 이날의 마지막 순서이자 청년 대회의 마지막 활동 모임이었다. 대회부터 운영된 사랑비 앱을 통해 만난 청춘 남녀들이 함께 어울리며 데이트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랑비란 후기 성도들을 위한 모바일

데이트 매칭 앱이다. 8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1,300건이 넘는 매칭이 이루어졌다. 서로 선택했을 때만 서로의 존재를 알도록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호감 표현을 주저했던 청년들이 좀 더 쉽게 데이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도움을 준다.

청년들의 데이트를 위해 은하수 찻집이라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운영되었다. 청년들이 음료를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름처럼 예쁜 조명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 청년들의 데이트와 친목 도모에 보탬이 되었다.

청년들이 모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대회 기간 내내 취침과 점호 시간이 주어졌다. 조원들과 좀 더 간증의 시간을 더 갖거나 데이트하고자 하는 이들이 다소 아쉬워했으나, 참가자들의 배려와 협조로 매일 밤 11시 30분에 숙소의 조명들이 소등될 수 있었다. ■





마지막 다섯째 날, 그리고 그 후

화 요일 오전, 대회의 마지막 모임으로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최윤환 장로와 함께하는 영적 모임이 열렸다. 이 시간에는 그의 아내인 구본경 자매도 연사로서 함께했다.

영적 모임의 주제는 “물리적 집합: 한국의 시온을 강건하게 함”이었다. 이 마지막 영적 모임은 후기 성도 청년들이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영원한 결혼과 가정을 꾸리며, 한국으로 물리적 집합을 이루어 시온을 강건하게 하라는 주제 성구와 네 가지 대회 목적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말씀을 시작하며, 최윤환 장로는 재외 교포 및 이민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겪는, 정체성에 관한 혼란 등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도전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전했다.

최 장로는 선지자들의 연차 대회 및 영적 모임 말씀 영상을 통해 각 나라에 집합하여 시온의 스테이크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1950년대 전쟁 후 너무도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지만 역시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최윤환 장로 자신도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왔을 때 가장이자 구직자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순종과 계속 충실히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얻었던 기적에 대해 나누었다.

“기적이란 신앙을 발휘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신앙(Faith)과 두려움(Fear) 중 어떤 F를 선택할 것인지 질문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 [신앙을 선택할 때] 지금은 앞이 아직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 스테이크 길환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답을 얻고자 청년 대회에 왔어요. 신앙과 두려움 사이의 선택에 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매일 그분과 함께하고자 할 때 주님의 영감을 얻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들으며, 답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월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내렸다. 비 내리는 산을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단체 버스에 몸을 실었다. ■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함께하는 영적 모임

2017 한국 청년 대회의 하이라이트, 지역 회장단과의 영적 모임의 말씀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영원한 결혼

북 아시아 지역 회장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저 희는 결혼하고 7년 동안 학생 부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으며 성전 성약을 지켰습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았고, 이런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개종하는 것이며,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남만적인 사랑은 삶의 한 부분을 넘어서 매우 심오하면서도 중요한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 없이 삶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랑 없이는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브리검 영 대학교 노변의 모임, 1963년 11월 3일.)

많은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 불확실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행한다면 신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복음의 원리 위에 있으며, 여기에는 확실치 않아도 행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신앙의 원리가 포함됩니다. 결혼은 신앙의 여성이며, 의로운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꾸려나가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겪는 재정적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물고기가 가득 잡혔던 것을 기억합시다. 계획하며, 충실히 십일조를 바치고, 배우자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마다 처한 어려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성신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영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보았던 첫 번째 시현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그가 무릎을 끓고 기도했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를 공격하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이나 외설물에 빠지도록 대적의 공격을 받듯이 말입니다. 그에게 가해진 실제적 공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는 곧 멸망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 앞에 빛기둥이 내려왔고, 그는 모든 위협과 어둠에서 풀려났습니다.

사탄은 실재하고 여러분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여러분을 공격에서 풀려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시현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스미스 역사 2:17)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영적인 집합: 선교 사업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영 적인 집합은 곧 선교 사업입니다. 저와 아내 모두 개종자입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미래를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기 위해서는 용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입을 열고 말할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미소지으십시오. 미소지으며 여러분이 행복해졌다면 입을 열고 밝은 미소로 말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주위 사람도 행복해질 것이며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열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위대한 회원 선교사라는 책에는, “입을 열고 권유하는 자체가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직장, 식당,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앨마가 앰몬아이하 성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여행할 때, 주의 한 천사가 나타나 앰몬아이하 성으로 돌아가도록 명하자 앤마는 즉시 순종했습니다.(앨마서 8:18) 성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계시의 영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영에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행동을 취하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믿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거야.’ 우리는 이미 시작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원리, 즉 행위와 권능의 원리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는 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Exercise Faith in Jesus Christ.) ■

물리적 집합: 한국의 시온을 강건하게 함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최윤환 장로

한 국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한국입니다.(러셀 엠 넬슨,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2016년 10월 연차 대회) 한국에



성전을 주시고 모든 의식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남아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강건하게 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정말 중요한 세대이며,

여러분은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아름다운 시온을 건설할 때,
여러분은 한국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도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신앙을 발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F, 신앙(Faith)과 두려움(Fear)이 있습니다. 어느 F를
선택할지 여러분이 올바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선택할 때 그분의 뜻을 따르는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1.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위를
쳐다보면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길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기에 여러분은 그에 따르는 힘을 갖게 됩니다. 힘과
균형과 치유를 받기 위해 위를 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2. 꿈을 계속 키우십시오. 아름다운 꿈을 지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려는 꿈을 꾸십시오.(제3니파이
27:27)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고유한 재능과 특성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3.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외모나 장점을 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진 장점을
모든 채 ‘비’참해지고, 상대를 판단하며 ‘교’만해집니다.

4. 긍정적이 되십시오. 선교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NO’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라는 말의 약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엽시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성신을
받아들입시다. ■

〈청년들의 소감〉

3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가는 길이라서 짐이 많고 팔이
부리져서 힘들었지만 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영을
많이 느끼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혼혈이고 한국에서 짧게만
살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살길 원하시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정착하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아직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뒤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도 도움을 주고 싶고, 북한이 개방되면 역시
돕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한 걸음씩 깨닫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요.

스위스 취리히 스테이크 이동주 자매

저는 침례를 받은 지 아직 3개월이 안 된 회원입니다. 개종 후 교회
생활은 문제없이 흘러갔지만 제 신앙은 너무 작았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를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청년들의 오랜 설득으로 온 청년 대회 성찬식에서,
이 대회에 온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종과 이후
있었던 우여곡절의 모든 과정이 떠오르며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찬식 모임이 끝나고 와드에서 제 개종을 도와준
친구를 찾아가 곧장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날 교회로 이끌고
청년 대회로 이끌어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꼭 나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경기 스테이크 김주영 형제

처음 유학길에 올랐을 때는 빨리 언어를 배우고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그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제가 가진 정서와
깊은 감정까지 섬세하게 소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이 청년 대회에서는 같은 문화, 언어, 정서를 가진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아주 쉽게 받고 있습니다. 왜 본국으로 집합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집합할 때, 더 쉽게
단합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시온
건설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남 스테이크 정부현 형제

한국 초기 성도들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진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들은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시고 노력했는데, ‘나는 내 주위 사람에게만이라도 선교 사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라며 스스로 질문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SNS 선교 사업을 주제로 한 하루 열기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
조원 중 한 명이 “클릭 한 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야마시타 장로님 부부 역시 “Open
Your Mouth(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위 말씀들을 통해 제 주위 사람에게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이
복음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써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이고, 이 행복을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 스테이크 류홍은 자매

우리는 각자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까?

지난 8월 20일 일요일, 전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가 각 센터에 모여 연합 스테이크 대회 방송을 시청했다. 한국 성도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이 대회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감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가 가족, 성약의 축복, 구주의 속죄라는 세 가지 축복에 관해 말씀하며 방송 모임이 시작됐다. 공 장로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신앙과 결심을 지니고 나아가며 주님의 성약을 따를 때,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구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실 것을 간증했다.

이어 최근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받은 로버트 시 케이 장로가 말씀했다. 그는 고든 비 헹클리 회장이했던 한국 서울 성전 현납 기도에서, “이 나라가 속박과 억압에 얹매이지 않도록” 간구했던 내용에 대해 말씀했다. “헝클리 회장님께서 이 훌륭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탄압만이 아니라 영적인 속박에도 얹매이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구주께서도 바라시는 바랍니다.” 그는 성약을 지키고 순종하여 영적인 속박에 얹매이지 않는 충실한 성도가 되도록 권고했다.

본부 초등회 회장 조이 디 존스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우리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고 전하며, 주님께 우리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의 열쇠라고 전했다.

서울 서 선교부 회장과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한 바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는 청년 시절 전임 선교사로서, 또한 이후 선교부 회장으로서 한국에서 목격한 복음의 기적에 대해 나누었다. 또한 그는 북 아시아 지역 계획을 하나씩 언급하고, 이를 따를 때, 그가 목격했던 기적의 역사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 연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였다. 베드나 장로는 지난 해 10월 한국에 방문하여 광주와 부산에서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마태복음 6:33) 권고했다. 이 말씀은 많은 2017년 한국 청년 대회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등 한국 성도들을 강화해 왔다. 이날의 말씀을 시작하며, 베드나 장로는 “한국에서 만난 분들과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여전히 삶에 축복이 되고 있다”며 한국 성도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한국 성도들의 충실히과 도전 과제, 또한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들었을 때 머리와 가슴 속에 ‘단순한 복음 진리와 기본 원리들이 거듭 떠올랐다고 말했다. 베드나 장로는 “각자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며 한국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우리는 개인이자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것과 보조를 맞추겠습니까? … 아니면 역시 개인이자 하나의 교회로서 기존의 방식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을 계속 고집하겠습니까?”

…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일의 핵심은 신권 의식을 받고 지킴으로써 구주의 속죄에 따르는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들딸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주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베드나 장로는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는 세 가지 잣대이자 기본 원리로서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희생, 셋째, 현납을 들었다. 그는 한국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원리를 실천하도록 당부하며,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일이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별되고 기쁨에 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활동 회원이 되어 회복된 복음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구주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이 아닌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가 성스러운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킬 준비를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역사를 조사하여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위해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기쁘고 용감하게 살아 계신 구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말씀(씨앗)이 전파될 때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교회는 교회를 홍보하고 선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과 언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그릇된 정보들을 시정하여 교회의 평판을 지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은 말씀(씨앗)이 전파될 때 세상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땅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홍보 평의회’이다.

교회 각 지역(Area)에는 지역 홍보 평의회, 그 아래 국가 홍보 평의회, 그리고 각 스테이크 홍보 평의회가 있다. 지난 7월 24일 오피스 형제가 북 아시아 지역 홍보 평의회의 책임자(Director)로 임명되어 지역 홍보 평의회의 사무실을 한국에 두게 됐다.

홍보 평의회의 기능은 사회 지도자, 정부 관리, 보도 매체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회 회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실하고 근면한 제자들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돋는 것이다. 오피스 형제는, “홍보 평의회는 직접 선교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말씀(씨앗)이 잘 자라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선교 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모든 회원은 지역 사회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각 스테이크 홍보 평의회의 홍보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다. 스테이크 수준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좋은 행사를 했거나 수상했을 경우 등은 뉴스룸(Mormonnewsroom.org)에 보도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또한 언론이나 지역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홍보 평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 홍보 평의회의 지속적인 활약과 더불어 한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바로잡히고 사회적 인식이 한층 밝아지길 기대해 본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부 회장

부산 선교부—정동환 회장 부부

정동환 회장과 그의 아내 김정숙 자매는 둘 다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로서 일과 부름을 통해 가족과 교회, 봉사에 헌신하며, 또한 회원 선교사로서 주위에 회복된 복음을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선교부 회장이라는 부름이 왔을 때 조금 걱정이 됐다고 정 회장은 말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라는 구절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지만, 당시 선교 사업 중인 두 자녀와 중학생인 막내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동안 봉사한 많은 분의 모범과 희생이 떠올랐고,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봉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동환 회장은 2009년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국 관리 본부 대표로서 일해왔으며 금천1 와드 감독과 안양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김정숙 자매는 초등회, 주일학교,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다.

정 회장 부부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둘째인 아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 중이다. 정 회장은 함께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자녀를 보는 듯 애듯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인내를 갖고 경험하고 배우며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 결국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빛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빛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와 친절이 복음을 권유하는 마음이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빛이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수고로 주님의 사업이 번성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새로 부를 받은 선교사 : 25 명



김권영 장로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유다 세인트조지
선교부



김소연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
대전 선교부



김소은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부산 선교부



김주혁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김지혜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대전 선교부



김진경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김한빛 장로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
대전 선교부



문진성 장로
경기 스테이크
분당 와드
대전 선교부



박다솔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송파 와드
대전 선교부



박세영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1 와드
부산 선교부



박원진 장로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부산 선교부



방승현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송시운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대전 선교부



신준희 장로
경기 스테이크
분당 와드
뉴저지 모리스타운
선교부



오해리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뉴질랜드 웰링턴
선교부



이다경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선교부



이신화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부산 선교부



이종민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이준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이한슬 장로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임시준 장로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선교부



전주례 자매
울산 지방부
포항 지부
서울 선교부



최우정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부산 선교부



현경돈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대전 선교부

정정합니다

지난 9월호 지역 소식의 “새로 부를 받은 봉사 선교사”란에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의 봉사 (부부) 선교사이자 최정주 장로의 아내인
송용희 자매의 이름이 김영주 자매로 기재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역 원 및 단 위 조 직 변 경

부산 선교부

회장: 정동환 형제(전임: 배로우 형제), 제1보좌: 길영권 형제, 제2보좌: 이준택 형제